



◇왼쪽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법수사지 3층석탑의 축대가 무너진 모습, 길가에 방치된 전북 남원시 민복사지 불두, 심하게 훼손된 전북 완주군 송광사 벽화

성주 법수사지 3층석탑  
축대 무너져 붕괴위기

남원 민복사지 불두  
도로 바로 옆 '아슬아슬'

완주 송광사 대웅전 벽화  
떨어지고 망가져 엉망

## 성보 훼손-도난 '계속 손 놓고 있을건가'



◇회암사지 악수터 안내판으로 전락한 비석 조각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 마애보살입상(향토유적 제14호)

석가탑으로 잘 알려진 경북 경주시 불국사 삼층석탑(국보 제14호)은 자대석이 갈라져 있어 보는 이의 눈을 이리저리 하고, 경기도 시흥시의 명동인 소래산 마애보살입상(향토유적 제14호)은 흰색 회화 약품으로 뒤덮여져 된 채 방치되어 있다. 경기도 양주군 회암사지 인근 악수터에는 이불모를 선승의 비석 파편이 악수터 안내판으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훼손에는 기본적으로 불교문화재가 세워진 지 짧게는 수백 년에서 길게는 수천 년이란 시간이 빚어낸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불교문화재 전반에 걸쳐있고, 보존 대책 또한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안타까운 정도를 넘어선다.

10여 년 간 불교 문화재를 소재로 사진을 찍어 온 사진가 이병운(불교사진연합회 회장) 씨에 따르면, 사찰과 폐사지가 있는 전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석가탑이나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회암사지 악수터의 비석 파편과 같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거나 이미 훼손된 불교문화재들과 마주할 수 있다.

경북 성주군 법수사지의 삼층석탑(도지정문화재 제86호)의 경우, 자대석 주변을 광경히 닦기 위해 지표면을 고르는 과정에서 쌓은 축대가 무너져 있고, 자칫 석탑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막곡동에 있는 삼층석탑(도지정문화재 제110호)은 자대석의 아래에 광경한 돌을 밀어 넣어, 석탑이 기울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데, 역시 제대로 한 보수라고 볼 수 없다. 경북 안동시 안기동 삼층석탑은 보수가 잘못돼 석탑의 좌우가 불균형하고 여기 저기 덧칠된 시멘트가 흉물스럽다. 경북 경산시 불국사의 삼층석탑(보물 제429호), 경북 의성군 삼층석탑(보물 제188호)은 육안으로도 풍화로 인한 훼손을 짐작할 수 있다. 경북 영천군 팔공산 동쪽 기슭에 있는 거조암의 나한 4구와 경북 안동시 안기동 석불좌상(보물 제58호)은 문화재 전문가의 고충 없이 흰색 안료로 덧칠되어 예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 전북 남원시 민복사지 옆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불두'가 있는데, 도로변에 방치해 놓은 상태다. 보호간판이 있기는 하지만, 도로와의 거리가 불과 30여 센티미터에 불과하다. 전북 완주군 송광사의 경우, 보물 제1243호로 지정된 대웅전의 외벽 벽화는 떨어져 나갔고, 뒤편 아산에는 탐비로 추정되는 조각들이 나뒹굴고 있다. 전남 곡성군 태인사 역시 탐비로 보이는 파편이 경내에 방치되어 있다. 전남 화순군 광봉사의 할감산사(국보 제57호)은 풍화로 인한 훼손을 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다. 이들 불교문화재들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불교문화재는 훼손만으로도 사라지는 게 아니다. 도난으로 인하여 자취조차 찾을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화재 도난'은 '문화재 훼손'에 대한 근심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심각하다. 조계종에서 발행한 <도난백서>(1999년 7월 간행)에 따르면 지난 30여 년 간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는 316건에

총 453점. 문화재 전문가들은 "국가·지방지정 문화재들이 훼손되고 있는 마당에 비지정문화재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큰 사찰이야 흥무·재무·교무 등 소임을 맡은 스님들이 있지만, 작은 사찰의 경우 종무소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비지정문화재에는 신경 쓸 여력도 없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지자체 문화재 담당공무원의 정기 순찰은 해당 문화재의 존재 여부 확인이 전부인 정도다.

불교문화재들이 훼손되고 도난당할 때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사람들은 불자들이다. 지극한 경배의 대상이던 탑과 불상과 경전과 탱화가 무참하게 망가지고 흔적조차 없어졌을 때 느끼는 참담함은 이루 형언이 어렵다. 현재 조계종은 전국 문화재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뒤늦게 문화재를 조사하고, 이를 자료화해 문화재로 지정하는 데는 3~5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국의 산과 들에는 있는 수많은 사찰과 폐사지의 불상이나 탑, 그리고 석등, 비석, 부도 등 불교유산들은 고승의 빛나던 행적과 간절한 기원이 깃든 전설을 담고 있다. 이러한 불교유산을 지킨다는 것은 원형 보존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를 공유하는 데 있다. '보존'이란 재작성성을 존중하는 것이요, '공유'란 문화재에 담긴 정신을 토대로 하여 미래 지향적 문화창조의 기틀을 다지는 데 있다.

오종욱 기자(gbaou@buddhapia.com)



인터뷰  
불교사진가 이병운 회장

### "사진찍고 돌아서면 항상 발걸음 무겁죠"

"사찰과 절터에서 사진을 찍고 돌아갈 때 항상 마음이 무거워옵니다. 변변한 보호 대책 없이 성보들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21일 50여 명의 슬라이드 필름을 들고 본사를 방문한 이병운(불교사진연합회 회장) 씨. 그가 본사를 찾은 것은, 보호 조치 한 번 받지 못하고 훼손되고 있는 불교문화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9월 광주 보문동사지에 답사 갔을 때, 도굴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낮인데도 말이죠. 도굴범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서있던 곳에서 7~8개의 구덩이를 발견했어요."

이 씨가 가지고 온 슬라이드 필름에는 최근 답사를 다녀온 문경, 안동, 경주, 광주 지역과 경기도 일대에 흩어져 있는 불교문화재의 실상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는 사찰 아산에서 나뒹구는 이불 모를 선승의 비석 파편에서부터 석가탑 자대석의 중앙 부위에 갈라진 틈새에 이르기까지, 전국 사찰이나 폐사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문화재 훼손의 전경들이 담겨 있다.

이병운 씨는 "처음에는 인사동에서 문화재 훼손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전시회보다는 언론을 통해 알린다면, 사람들의 경각심이 더 높아질 것 같았다"며 "이 보도를 계기로 불교 문화재에 대한 사부대중의 인식이 한 단계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곡성군 태인사 경내에 방치된 비석조각



◇기단부의 모퉁이가 벗겨진 경북 의성군 삼층석탑(보물 제429호)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감자몽생이

일제 시대 할기의 일이다. 일본 천황도 경배한다는 조종종 의 명승인 사또가 조선불교와 일본불교의 통합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 고승들을 한사람씩 만나며 화유하고 있었다. 사또는 흥득과 함께 마지막으로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하고 있는 한암 스님을 찾았다. 한암 스님은

흥득과 사또가 도착하였다는 기별을 받고도 참선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흥득과 사또의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그러나 흥득과 사또는 한암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태산같이 무겁게 느껴지는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천진한 스님의 모습에 그만 넋이 나

### 콜레스테롤 저하 성인병 예방

가고 말았던 것이다. 이윽고 사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한암 스님은 날아다니는 파리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으실 뿐이었다. 사또가 다시 물었다. "스님께서 대장경과 조사들의 어록을 보며 어느 것에 가장 깊이 가명받았습니까?" 한암 스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적멸보궁에 참배나 갔다 오시지요." 사또가 다시 물었다. "입산 초년과 만년의 경계가 같다고 보십니까? 다르다고 보십니까?" 이대, 사자가 차와 감자몽생

이(떡의 일종)를 손님 앞에 내놓았다. 한암 스님이 말씀하시길, "조선의 감자몽생이는 한암을 만 들고 일본의 덴푸라는 사또 당신을 만났을뿐이오" 사또는 그 후 감자몽생이를 하루로 삼았다고 한다. 젊어서는 사발하고 묵묵하는 날이면, 으레 떡식을 만들어 먹는데, 감자전이 인기가 있고, 한암 스님은 절의 행사 때나 명절에 올라오는 감자몽생이를 어린이처럼 좋아하셨다. ■약선식 연구가, <신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감자 4개, 밤 5개, 콩 한줌, 대추 10개, 잣 1큰술, 볶은 소금, 참기름, 향설탕 2큰술

요리법 ① 밤은 껍질을 꺼서 2~3쪽으로 나누고 대추는 물러 썰어 얹어준다. ② 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건더기와 즙을 분리하고 즙에서 가라앉은 녹말을 분리한다. ③ 밤, 콩, 대추, 잣, 감자건더기, 소금, 향설탕, 녹말을 섞어 반죽하여 30분 정도 쪄낸다. ④ 전 떡을 틀에 담아 식힌 후 썰어낸다.

효능 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성인병을 예방하는 식품으로 껍질에는 함양 성분이 있어 함께 먹으면 좋다. ② 비만인 경우엔 감자껍질이 좋다. ③ 단, 신장염이나 신부전증 환자는 감자를 피할 것(재래종 자루감자는 무방).